

사랑을 나누는 샘물호스피스

샘물호스피스선교회(회장 원주희 목사/이사장 손봉호 박사)는 1993년 6월,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의 치료를 기대할 수 없고 잔여수명이 6개월 전후로 예측되어지는 말기환우와 그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소망·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돌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회는 교회, 병원, 단체 및 개인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협력과 후원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 1월 말까지 말기 암환우 3,540명과 말기 에이즈환우 33명, 에이즈 감염인치과환우 400명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호스피스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말기환

우와 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갖고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14,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 가족이 없는 분들은 가족 역할을 대신 감당해 오면서 말기 환우들을 섬겼고 그 중에 3,015명의 말기 암환우와 5명의 말기 에이즈환우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본회에서 에이즈호스피스 시설과 에이즈 감염인 전용치과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후원자께서 5억 원을 후원 해주셔서 7병상의 에이즈호스피스





시설과 치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로움과 두려움, 절망 가운데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에이즈 말기환우들을 돌보는 요양·호스피스 시설과 감염인 전용치과를 2007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환우들과는 달리 에이즈 말기환우들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요 요양 기능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을 더 증축하여 요양·호스피스 시설을 16병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요양대상 환우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더 증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즈로 인해 환우들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전망하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이 그리워도 만날 수 없는 분들, 상태가 좋아져 집에 가고 싶어도 가족들이 돌볼 수 없어서 퇴원할 수 없고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어떻게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에이즈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환우와 가족들이 점점 변해 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 입원 하셔서 방문을 꼭 닫고 나오지도 않으셨던 분이 밖으로 나와 운동을 하고 마음을 열고 웃으면서 함께 잘 지내게 되었을 때, 말없이 도망가기를 반복했던 분이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매주 감동스러운 시와 글로 우리를 감동시키며 다른 환우들을 격려하고 봉사하실 때,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하

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짜증을 내셨던 가족들이 고마워하며 함께 짐을 나누어지실 때, 가족들이 이제는 집에서 환우를 섬길 수 있는 각오가 되었다고 데려가셔서 잘 계시다는 소식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또한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멀리 부산이나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치과 봉사가 '정말 감염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니가 완성되신 어떤 감염인께서는 '이제 입을 벌리고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라며 환하게 웃으시고, 또 어떤 여자 감염인께서는 틀니를 끼고 나서 얼굴 모습이 너무 예뻐지게 달라져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실 때 그동안 봉사하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잊게 됩니다.

치과진료는 대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차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치과진료 봉사에 더욱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치과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형편상 찾아올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찾아가서 돌보아드리기 위해 이동식 치과진료버스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후원의 손길을 보오고 있습니다. 본회에서 요양·호스피스 시설과 감염인 전용치과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값진 조언을 늘 겸손하게 받으면서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에이즈 환우와 가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